

‘담양군수’ 선거운동 첫날... ‘공세’ 혁신당 vs ‘수성’ 민주당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텃밭을 공략하기 위한 조국혁신당의 총공세가 펼쳐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거대 정당의 이점을 피력, 정권 창출을 위한 결집을 호소하며 수성전에 나섰다.

담양군수 재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담양군 창평면 창평전통시장 일대에서 첫 격전을 치렀다. 이날 선거에 나선 것은 혁신당 정철원 후보다. 혁신당은 서왕진 혁신당 최고위원과 신장식 국회의원이 지원군으로 투입, 화력을 지원했다.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패자’ 박용두 전 곡성군수 후보도 절치부심 칼을 갈고 나와 정 후보의 ‘담양 공성전’에 힘을 보탰다.

신장식 의원은 유세차량에 올라 “정 후보가 당선되면 혁신당에서는 1호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호 군수가 되면 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담양군민들의 여의도 민원실장이 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최고위원도 정 후보의 “3선 군의원” 경력을 강조하면서 “선거 직후 시급한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자는 담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 후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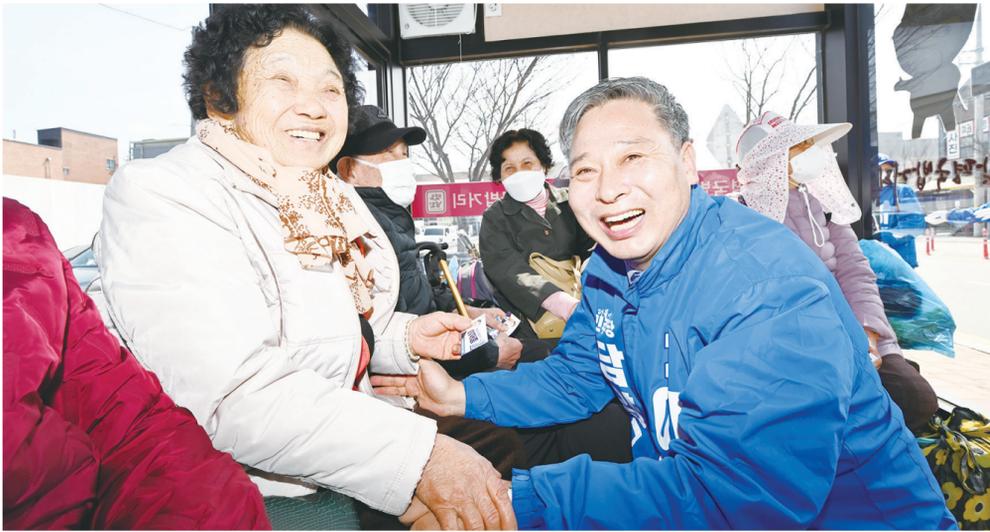
화끈한 지원 사격에 힘입은 정 후보 역시 재선거를 조래한 민주당을 저격, 군의장 경험과 토박이라는 장점을 무기로 공격을 펼쳤다.

정 후보는 “담양군 조례에는 마을 이장에 출마하려면 1년 이상 마을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선거철 갑자기 나타나 군수에 출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상대 후보를 지적했다. 이어 “11년간 의정활동과 군의장 경험을 살려 담양 발전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혁신당의 만만치 않은 공세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 민주당 이재종 후보 측도 곧장 반격에 돌입했다.

지원 유세를 위해 창평시장을 찾은 민주당 소속 이규현 전남도 의원은 “이 후보는 담양에서 태어나 자라다 전남대학교에 합격한 뒤 민주당 광주시당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경험과 인맥, 역량을 갖춰 다시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찾아온 것이 잘못인가”라며 방어벽을 쳤다.

이 후보도 혁신당의 공격을 의식한 듯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가 담양군 창평면 창평전통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시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오전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가 서왕진 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담양군 창평면 창평전통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시스

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지원... ‘총공세’ 민주당, 거대정당 이점·정권창출 결집 호소 재선거, 28~29일 사전투표... 4월2일 본투표

인지 전통시장 일대를 돌며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엄마’라고 부르며 담양의 아들을 자처했다.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면서도 “이제는

군정, 군수실 찾아오는 수고를 하지 말라”며 “밤이든 새벽이든 전화를 달라, 카톡(카카오톡)이든 문자든 보내달라. 엄마, 아버지 말씀 언제든 듣겠다”고 표심을 자극했

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국회 170석이 넘는 의석이 있다. 혁신당은 12석 뿐”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고향에 머물면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담양을 만들 역할은 민주당에 있다. 더 풍족한 담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28~29일 사전 투표와 내달 2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담양/이종욱 기자

프로야구 개막...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KIA 타이거즈 홈경기 대중교통 이용 적극 권장
기아챔피언스필드 경유 버스노선 배차시간 조정
불법주정차 제도 강화... 경찰·소방 대응체계 유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 프로야구(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KIA 타이거즈 홈경기 관람객 증가에 따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광주시는 우선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에 대해 경기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배차시간을 촘촘히 하는 등 관람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KIA 타이거즈 구단에 대중교통 이용 관람객에 대해 입장료 할인 확대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노력,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도시 정책 기반한 주차장 관리 등 교통정책 추진에 협력하는 등

내용을 담은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의 상생협약에 따른 것이다.

또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와 협력해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 불법 주정차 제도를 강화, 경기장 주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경기 종료 직후에는 경기장 주변 주요 정체 도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장 내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소방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현장관리반을 수시로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장 이동 때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시중유통 한우 안전해요”... 50도 이상서 익히면 ‘이상무’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남도는 20일 “시중 유통 한우는 섭취하기에 안전하다”며 식품으로서의 한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질병이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50도 이상 온도에서 쉽게 사멸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56도에서 30분, 76도에서 7초 이상 가열하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전남도 소속 수의사들의 철저한 도축검사도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출하 전 일주일 간 임상관찰 후 해당 시·군에 임상확인서를 제출하고 임상검사 후에는 도축장에 증명서 제출하게 된다.

이어 예방접종 확인서와 임상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입 주변 물질이나 침 흘림 여부 등 구제역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이상이 없는 가축만 도축

해 도축검사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후 비로소 시중에 유통되게 된다.

도 관계자는 “50도 이상에서 사멸되기도 하지만 강산이나 강알칼리에서 쉽게 없어지는 특성이 있어 인체에 들어가더라도 강력한 위산에 의해 사멸되고 우유 역시 130도 이상에서 고온 살균처리되고 저온 살균유유도 70도 이상에서 살균처리하게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마릿수가 전체 사육두수(334만 마리)의 0.01%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공급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날 방역대책 점검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까지,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사립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염선호 기자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